

# 스타벅스, 5·18에 ‘탱크’ 이벤트... “천박한 역사관” 비난 쇄도

‘탱크데이’ 행사... ‘책상에 탁!’ 문구도  
지역사회 “군사정권 시절 비극 연상”  
스벅 “부적절 문구 사과” 행사 중단  
SNS 중심 ‘불매 운동’ 움직임 확산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인 18일 군사정권 시절의 비극을 연상케 하는 행사를 열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에서 ‘탱크데이’ 행사를 홍보했다. 명칭이 ‘탱크’인 텀블러를 세트에 구매하면 원래 가격의 10~21% 할인해 판매한다는 이 행사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와 온라인 등 곳곳에서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며 스타벅스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 “탱크와 장갑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을 향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상징”이라며 “기업의 마케팅도 타인의 고통과 역사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기념재단은 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 역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독재정권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뿜었던 괴뢰치한 거짓말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명백히 차용한 것”이라며 “역사적 상징과 아픔을 가볍

게 소비하고 희화화한 무감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도 성명을 통해 “탱크는 1980년 5·18 때 계엄군 탱크를, ‘책상에 탁’은 1987년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의 비극을 연상시킨다”며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모연대는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태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고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진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성스러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

타벅스가 자행한 인면수심 마케팅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5·18 영령과 광주시민을 조롱한 부도덕한 마케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역시 “5·18과 1987년 민주화운동 탄압의 상징을 하나의 마케팅 문구로 소비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적 역사 맥락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기업 전체의 역사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 부재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홍보 문구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정에 대한 별다른 해명 없이 사과문만 올리고 행사를 중단한 상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과문에서 “판매 촉진 행

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음을 발견했다”며 “행사는 중단했고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5·18 46주년에 탱크데이 행사를 할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며 “오늘부터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탱크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텀블러에 탱크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스타벅스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변은진·윤찬용 기자

## 광주에 국내 최초 ‘미래차 인지부품 시험센터’ 건립

총사업비 207억원 투입 2030년 완공  
자율주행·로봇·UAM 등 안전성 확보  
미래차 소부장단지 연계 산업 고도화

광주시에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라이다·카메라·레이더 등 인지부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의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이동수단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LiDAR), 카메라, 레이더 등 인지부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207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검증 장비 9종을 구축,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국제 기능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검증 환경을 조성, 지역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한결 수월하게 획득하고 세계 신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표준 기반의 시험 프로세스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인지부품 기업의 기술 경쟁력



김성환 장관, 에너지공대 방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를 방문, 관계자들과 에너지특성시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을 강화하고 국제 안전 규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의 핵심 전략인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자율주행 핵심부품(인지·제어·통신) 인증평가 및 실증사업과 직접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인지·제어·통신 인증평가 체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은 국제 안전 규격에 선제 대응하며 해외 시장을 개척할 강력한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와 강력한 동반 상승 효과를 일으켜 기술 개발부터 인증, 사업화에 이르는 ‘미래차 전주기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인지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기반 시설을 국내 최초로 광주에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급약품 지원

해열제·소화제 등 8종 1천200세트

전남도는 18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현장 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구급약품 1천200세트를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수탁기관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중 구급약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언어 장벽과 낯선 지리적 환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절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나 부상에 신

속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급약품 세트는 외래 진료 통계를 근거로 해열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구충제, 알리약 등 기본 의약품 8종으로 구성됐다. 8개 외국어 복용 설명서도 함께 첨부된다.

특히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나주시가족센터, 동신대학교 학생 등 6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약품 포장을 직접 작업하며 지역사회의 응원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전남도는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22개 시·군 108개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통역 지원 서비스를 병행해 외국인 주민의 언어장벽 해소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재정 기자

## 전남, 광역도 중 봄철 산불 발생 최저

전년 대비 30% 감소 23건 기록

전남도가 올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 전국 8개 광역자치도 가운데 산불 발생 최저를 기록했다.

18일 전남도와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2026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50건(15일 기준)이었다.

이 기간 전남에선 23건이 발생해 전국 광역자치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2건과 비교해도 약 30% 감소했다.

이는 전남도가 산불 현장 지원관제, 전남산애(山愛)감시원 운영, 주말·공휴일 특별 기동단속 등 전남형 산불 예방·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남산애감시원은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서 총 1천40명이 활동하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 317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신고해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산불현장도 지원관제’를 신규 운영, 산불 발생 시 지원관을 시·군 통합지휘본부에 즉시 파견, 초동 대응과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실제 지난 광양 중형산불과 곡성·고흥 야간산불 당시 신속한 현장 지원으로 대형 산불 확산 차단에 큰 역할을 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예방 감시체계와 초동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